

히루젠 사이클링

그림처럼 아름다운 히루젠산자의 봉우리를 배경으로 완만한 경사의 언덕이 펼쳐지는 히루젠 고원은 자전거로 산책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산악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일반도로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2인용 자전거까지 목적과 이용자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대여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루젠 분지 주변에는 약 30km의 사이클링 코스가 있어 누구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코스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도로(평소에 교통량은 적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과 공중 화장실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족끼리 외출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휴식하지 않고 계속 달리시면 한 바퀴에 약 2시간 반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링 코스는 히루젠 시오가마 냉천, 히루젠 와이너리, 히루젠저지 랜드 등 이 지역의 인기 명소 근처를 지나기에 자전거 여행을 하루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링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면 난관 코스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난관 코스에는 마니와 근처를 한 바퀴 도는 루트(100km)와 마니와에서 시작해 근처 돗토리현에 우뚝 솟은 다이센 주위를 도는 루트(90.6km)가 있습니다. 후자는 자전거 레이스 ‘투르 드 다이센(Tour de Daisen)’에도 사용되는 험난한 코스입니다.

히루젠의 조용한 농촌지대를 자전거로 가면, 작은 현지 농장 생활의 단면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농장 펜스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저지 소들이 방문자를 맞이해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즐기고 싶은 분에게는 도중에 작은 치즈 숍에 들르시거나 길가의 매점에서 채소를 구매하는 등 소소한 즐거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하게 연습할 목적으로 방문한 열정 넘치는 사이클링 팬이라면, 하루 연습의 마무리로 ‘히루젠 야쓰카 온천’이나 건강 회복에 효과적인 라돈 온천 ‘고젠노유’에 몸을 담그실 수도 있습니다.

‘히루젠 사이클링 서비스’가 운영하는 설상(雪上) 자전거 투어에 참가하시면 겨울에도 히루젠을 자전거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드리스 패트 타이어는 마찰이 커지기에 얼음으로 덮인 도로에서도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투어 참가자에게는 아직 손대지 않은 눈 덮인 들판 위에 안개를 휘감은 봉우리가 우뚝 솟는 멋진 광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클링은 히루젠의 풍경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훌륭한 수단이며,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